

## 2020년도 제 1차 이사회 의록

1. 일 시 : 2020년 2월 26일(화) 11 : 00

2. 장 소 : 206호

3. 안건 및 결과 :

| 안 건  | 결 과             |
|--|-----------------|
| 전차(2019년 제5차) 회의록 보고                                 |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됨. |
| 시설장 겸직불가로 인한 영진노인복지센터 사업 분리 및 영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설(안) 심의 |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됨. |

4. 참석임원 : 복진년, 주수길, 장혁표, 진명숙 이사

5. 회의내용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복진년 대표이사 : 법인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이사 7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영진복지재단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2) 대표이사 인사

복진년 대표이사 :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사회 안건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3) 전차회의록 접수 승인

복진년 대표이사 :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전차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낭독케 한 후 이의여부를 묻자 이사 전원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 4) 부의안건 상정

복진년 대표이사 : 이번 이사회에 법인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총 1건이며, 이사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있는지 묻자 이사 전원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법인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1건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겠음을 선포하다.

### 5) 부의안건 심의

< 제1호 의안 : 시설장 겸직불가로 인한 영진노인복지센터 사업 분리 및 영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설(안) 심의 >

북진년 대표이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진노인복지센터는 재가노인지원사업, 장기요양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재가노인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재가노인지원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인건비 3명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준에 의거하여 시설장은 복지관 또는 장기요양 기관과 겸직이 가능하였습니다. 허나 이후 시설장 겸직 시 수익이 발생하는 장기요양사업에만 매진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히 센터 운영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부산시의 판단 아래 2020년 부산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원 계획에 의거한 “시설장 겸직 분리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명칭 통일” 하라는 사안에 따라 ‘시설장은 복지관 또는 장기요양 기관과 겸직이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영진노인복지센터와는 별개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는 시설명으로 신규개설하여 재가노인지원사업을 지속코자하며, 북진년 시설장의 겸직 불가로 인해 김희영 팀장을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기존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가노인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영진노인복지센터에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개설 및 분리로 인해 영진노인복지센터에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장혁표 이 사 : 재가노인지원사업의 분리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북진년 대표이사 : 재가노인지원사업은 시군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장기요양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자금 원천이 다르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재가노인지원사업의 분리로 사업 규모나 예산상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음을 말하다.

주수길 이 사 : 이용 어르신들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장의 역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김희영 팀장의 전문성이 검증된 것인지 묻다.

북진년 대표이사 : 기존 재가노인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시군구 보조금 교부 금액에도 변화가 없기에, 2019년 12월 제출한 2020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운영할 것이므로 이용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임. 또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어 가기 위해 노인복지센터에서 8년째 근무하며 사업을 이끌어 온 김희영 팀장을 시설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며 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성과도 인정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시설장으로 추천코자 함을 말하다.

진명숙 이 사 : 북진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김희영 팀장은 노인복지센터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성과도 인정받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 임면(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하다.

주수길 이 사 : 진명숙 이사님 동의에 재청하다.

북진년 대표이사 : 이사님들의 동의 및 재청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 임면을 의결하다.

장혁표 이 사 :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수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다.

복진년 대표이사 : 영진노인복지센터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개설로 노인복지센터의 급여 종류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의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없음을 말한다.

주수길 이 사 : 당일 안건은 시설 자체적인 사정이나 결정보다는 부산광역시 재가노인지원사업 지원 계획에 의거한 시설장 겸직 분리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신규개설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산시의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하기에 동의하다.

장혁표 이 사 : 동의에 재청하다.

복진년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이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사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시설장 겸직불가로 인한 영진노인복지센터 사업 분리 및 영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신설(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6) 폐회

복진년 대표이사 : 기타토의 사항 여부를 묻고, 없으면 폐회 동의 요청하다.

주수길 이 사 : 폐회에 동의하다.

장혁표 이 사 :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전 원 : 폐회를 찬성하다.

복진년 대표이사 : 2020년도 영진복지재단 제 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니 12시 임을 얘기하다.

위 회의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가 다음과 같이 인감 날인하다.

대표이사 복진년



이 사 장혁표



이 사 주수길



이 사 진명수

